

육상진흥센터 건립 일반인도 즐겨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 찾다

<2>세계육상대회 치른 대구서 교훈

육상 국가대표 전지 훈련지 각광
아마추어 대회 잇단 개최 육상도시 자리매김
광주수영센터도 특별법 마련해 건립해야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른 대구시는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거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는 육상 국가대표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반인 대회를 잇달아 개최해 '육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제 행사를 치른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살려 시민이 육상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도 유치하고 있다.

국내 동호인 수가 적은 '수영'과 '육상'이라는 종목 특성상 대구시의 레거시 사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둔 광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육상의 요람, 대구육상진흥센터=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5조5876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2841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340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표적인 레거시는 대구육상진흥센터다. 세계육상대회 유치를 따른 대구시와 국제육상연맹과의 공약사항으로 대구육상진흥센터를 완공했다. 특히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에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법 덕이 컸다.

대구시는 대회가 끝나고 국내 유일 실내경기장인 육상진흥센터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한국 육상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육상진흥센터 위치는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스타디움 등 체육시설이 집적화된 장소에 자리하고 있어 단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반면, 광주수가 추진하고 있는 수영진흥센터 건립을 계획은 관련 특별법이 없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 스포츠 행사 레거시 시비 부담은 여전=대구 육상진흥센터는 수성구 삼덕동에 총 7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만

1577㎡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13년 12월 준공됐다.

센터는 200m트랙 6레인, 60m 8레인 직선트랙, 50m 윗업장, 관람석 5000석 등 실내육상 경기시설과 선수 숙소, 강의를, 스포츠 의학실 등 육상아카데미를 위한 공간도 조성됐다.

선수 숙소는 50실(100명 수용)이 마련돼 하루 이용료 2만 5000원으로 단체로 훈련하는 선수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대구육상진흥센터는 대구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전액을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연간 소모되는 관리 운영비와 예산은 인건비 8억 500만원, 운영비 6억8100만원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2014 대구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2017 대구세계실내육상경기대회를 유치·개최해 육상진흥센터를 활용했다.

또 육상 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새해알뜰마라톤대회,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전국실내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꿈나무실내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 체육회, 육상연맹이 상호 긴밀한 협업시스템도 구축했다.

김영학 대구육상진흥센터장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나서 육상진흥센터를 지어 아시아 육상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실내경기장에서 육상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레거시=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성과로 시민이 육상을 즐기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육상진흥센터는 국내에서 실내육상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2014년부터 매년 11월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해 약 750여명의 육상동호인이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또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대한육상연맹에 등록된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육상꿈나무 선수들의 동·하계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된다.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 등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치원과 학교의 체육행사, 동창회 행사에 장소를 대여하고 있다"라며 "기관·단체 행사, 스포츠 아웃도어 박람회 등 이벤트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힐링페어2019'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힐링 용품을 체험하고 있다. '힐링페어2019'는 이날부터 7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명사특강 들으며 스트레스 해소하고 힐링하세요

'2019 힐링페어' 개막...양재 aT센터서 7일까지 열려

'힐링'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 박람회인 '2019 힐링페어'가 4일 개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일보사와 (사)힐링산업협회, 전시기획전문기업 (주)이즈월드와이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나에게 주는 10가지 선물'을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양재 aT센터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박람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강원·영광·나주·무안·보성 등 전국에서 온 250여개사가 380개 부스를 마련하고 힐링으로 특화된 다채로운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힐링'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힐링브랜드 페어와 명사특강·워크숍, 클리닉으로 채워진 힐링 라이프페어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상품 홍보·판매 중심의 일반 전시회와 달리, 클리닉, 명사특강·워크숍, 국내의 저명한 '힐링' 멘토들에게 명상법과

운동법을 듣는 '멘토스테이지', 자신만의 힐링굿 만들기 등 101가지 클래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내 대표 뇌과학자로 꼽히는 이시형 박사의 '힐링의 뇌과학' 특강과 '아침편지' 고도원 원장의 '꿈 너머 꿈'을 주제로 한 강연이 4일 마련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요가 실천법을 다룬 원정혜 박사의 특강(7일)도 열린다.

전문강사들이 나서 선보이는 마사지·스트레칭, 체형 교정, 발레핏 프로그램, 요가 워크숍 등은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힐링브랜드페어의 경우 힐링푸드, 힐링시티&투어, 힐링플레이, 힐링리빙, 힐링뷰티 등 5가지 테마로 나뉘어 국내 힐링산업·문화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힐링푸드 코너에서는 친환경식품, 건강보조식품,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한 전시·체험이 이뤄진다.

국내의 힐링도시와 '느림의 미학'으로 알려진 슬로우시티 여행상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힐링시티&투어에는 전국 40여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명상, 요가 필라테스, 게임힐링, 반려식품 등으로 채워진 힐링플레이와 힐링리빙 전시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만큼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힐링산업협회는 이번 박람회 기간, 국내 힐링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힐링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힐링페어 2019'와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www.healingfair.co.kr) 또는 힐링페어 사무국(02-3475-2670)으로 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른 대구시는 육상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열린 육상마스터즈 대회 모습.

광주수영대회 시민서포터즈 참여 열기 후끈

1만명 모집에 1만2579명 신청

오는 7월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시민 서포터즈에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 동 주민센터, 사·자치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1만명 모집에 1만2579명이 신청했다. 시민 서포터즈는 수영대회 홍보를 통한 봄 조성과 각국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관광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광주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서포터즈 교육, 국가별 담당 팀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각 자치구별로 100~300명씩 5~10회에 걸쳐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수영대회 개요, 참가국 현황, 응원방법, 국제 에티켓, 응급상황 시 조치 요령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소양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자치구

동과 기관, 단체별로 40~80명 단위로 200여 개 팀을 구성해 참가국별로 팀을 배정하고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등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일반시민 서포터즈와는 별개로 '관광 서포터즈'를 구성해 참가국 선수와 방문객 등 관광, 맛집 등을 안내하고 광주 시티투어버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광주 관광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국제우호친선협회 등 민간단체 개별 서포터즈도 운영해 대회기간 별도의 안내나 지원이 필요한 국가나 선수를 대상으로 관광·쇼핑, 자체 기념품 전달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